

월요광장

정체성을 품은 도시와 공간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회색 양복을 빼입은 신사들이 어느 날 도시에 등장한다. 매일 숫자가 늘어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채지 못한다. 회색의 신사들은 “시간 절약”이나 ‘운택해지는 삶’과 같은 포스터들을 사방에 붙이고, 도시 사람들을 하나둘 꼬드쳐 시간 절약 거리를 체결 하더니, 이윽고 도시를 장악해 버린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도시의 시공간을 뺏아 버린 회색 신사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시간 도둑’으로부터 모모가 도시 사람들을 구해 내는 독일의 동화이다.

도시의 모습은 차츰 변해 가는데,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은 모두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지어진다. 그 안에 살 사람들에 맞추어 집을 짓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면 제각기 다른 모양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든다.

점점 있다. 다른 점이라고는 없는 고층 빌딩이 우뚝우뚝 솟아났다. 집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똑같아 보였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 보면 항상 비슷한 관상의 연연인 얼굴과 포스터들이 거리를 채운다. 여러 도시의 거리가 이렇게 존재감 없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끊임없이 복제거리고 지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다움과 같은 도시의 정체성이 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체성은 영어의 ‘아이덴티티’(Identity)에 해당하는 말로 그 어원은 라틴어(Identitas, Identicus)로 ‘동일하다’는 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도시 정체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그 구성원 간의 공유되는 특징인 동일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의 개체로 보았을 경우에는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특이성인 개별성의 측면이 있다. 동일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이 변함없이 남아 있는 연속성이며 나는 주위 사람과 환경에 잘 어울린다는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성은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다르다’ 혹은 ‘뛰어나다’ 등 특이성과 우월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시 정체성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 도시의 자기다움 즉 도시 내적 시각에서는 도시의 동일성, 그리고 도시 외적 시각에서는 도시의 개별성 내지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은 도시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도시가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도시는 획일화 경향이 강하게 되었는데 모든 도시가 고속도로, 고층빌딩, 대규모 아파트단지, 광장 등의 공통 요소를 갖추고 이른바 일반 도시화 되었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오천 년 한반도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 및 선조들의 지혜에 대해 배우고 노래 부르곤 했지만 그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 중 우리 도시 공간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얼마 없다. 이미 많은 전통 건축물이 무너졌고, 오래된 길목과 집들이 제거된 곳엔 새 길과 터널이 촘촘히 뚫리고 있다. 자본과 유행의 논리로 인해 정체성도 다양성도 결여된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도시 정체성이란 어떤 도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 도시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도시 정체성은 도시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고,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

요한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도시와 지역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소홀히 되어 획일적이고 매력 없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정체성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배경이 된다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조금 더 의도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도시와 공간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 특별한 장소들은 뇌리에 깊이 박혀 매력적인 장소로 남아 있게 된다. 그렇다던 이런 매력적인 도시와 공간이란 무엇일까? 살고 싶은 도시 1위인 호주 멜버른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녹지와 광장 그리고 이를 이어 주는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과 삶의 여건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환경을 마련해 도시를 채우는 삶들을 녹여낸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삶과 이야기가 있는 도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공간의 주인인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내가 사는 광주가 여러 사람들이 우연히 스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내 뇌리에 남아 있는 도시들에서처럼 평범함에 도전하고, 다양함을 상상하며 실현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작게 희망해 보기도 한다.

주민 건강이 도시의 미래다

기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먹이사슬 최하위에서 남극의 다양한 종들을 먹여 살리는 크릴새우. 새우라 칭하지만 사실 난바다곤쟁이목에 속하는 갑각류인 이 작은 생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낚시꾼들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크릴새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어획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크릴새우 조업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국가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크릴새우가 이전에 비해 80%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구 온난화로 문제지만 무분별한 인간의 남획이 멸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무병장수의 꿈은 연금술과 더불어 인류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건강하

게 오래살기 위한 인류의 희망은 다른 종들의 수난으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코끼리의 상아와, 물범의 기름 그리고 곰의 쓸개즙을 포함한 수많은 자양 강장 식품은 거대한 시장을 이룬다.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식품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 남미 원주민들이 먹었을 법한 열매와 뿌리들이 어느새 이억만리 타국인 대한민국의 식탁 위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요즘이다. 60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나들며 생선 수단으로서 식생활을 영위했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이란 무엇일까.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하고 질병이나 신체적 병약함이 없는 상태로 규정했다. 신체적·영양학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동구 역시 지난 2007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KHCP) 및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에 가입한 이후 주민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동구는 지난 2009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응급시계 시스템 구축, 건강 관리 바우처 시행, 동적골 산책로와 푸른길 도심 건강길 조성, 건강 아파트 운영, 건강 계단 설치 등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주민이 건강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구의 건강 도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건강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동 급원 클리닉, 건강 체험관, 직업병 예방 요가 등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령 친화 도시답게 백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치매 안심 센터를 중심으로 해마다 동을 순회하는 치매 걸진을 비롯해 치매 안심 마을 조성, 치매 안심 경로당 운영, 치매 세대 가스 안전장치 설치, 치매 가족 지원 사업 등 다각적으로 치매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사업인 ‘백세학교’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 세 명이 한 모듬이 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응급 상황 시 조기 대응을 꾀하고, 지역 기관·시설에서 운영하는 여가 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만 100개 모듬 300명의 어르신을 발굴해 시범 운영 중인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제법 뜨겁다. 이외에도 해마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전심 페스티벌’, ‘정신 건강 토크쇼’ 등 주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그야말로 ‘열일’ 중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은 2020년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시대 소원일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에 좋은 환경, 그것이 우리 동구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다. 구정 전반에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거 형태, 나이, 계층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 건강 도시를 위한 그 험한 발걸음에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

아이들이 아동 학대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기고



안정준 전남서부권 아동보호기관 조사팀장

최근 5세 아동이 계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하거나, 계부와 친모가 공모하여 계부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딸을 살해하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부모와 가정을 우려하는 아동들이 떠올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8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는 2만 4604건으로, 2014년 1만 27건에 비해 약 1만 4000건 이상 늘었다. 또한 아동 학대 사

례 중 약 76.9%는 부모에 의해 일어나며, 지난해는 28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 학대 사건이 가정 안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과 사회적 개입이 쉽지 않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에서는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상담원을 폭행하려고 시도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필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며 아동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상담원과 피해 아동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돌발매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을 다수 경험한 적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조사 거부 및 신변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아동 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 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학대 조사를 공무원이 전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력이 부족한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을 공표했다. 앞으로는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 학대 조사를 공공이 전담하며, 민간은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학대가 정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적 사례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가 소속된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 이전부터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아동 보호 통합 지원 전문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담 및 부모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재학대율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가족 기능이 회복되어 아동이 다시 원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견고한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춰 가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산 확보다. 현재는 아동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이 범칙 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권 기금 등으로 편성되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범칙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 지역 사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지방비(도비)를 자체 편성하여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를 설치했고, 아동 학대 조사와 사례 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적극적인 아동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전남도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사례다.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있으나 정책 제시만으로는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전남도의 사례처럼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 사회 유관 기관 등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변화에 동참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그늘 아래서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社說

광주 전국 최악 ‘주거 양극화’ 대책 시급하다

광주 지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주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 538만 원에 그친 반면 5분위 아파트는 평균 5억 1645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9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 지역 고가·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5분위 배율을 처음 조사했던 2013년 4월에는 3.7배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4.3배~4.9배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서울·대전의 4.8배, 대구·울산의 4.3배, 인천의 3.4배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세 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광주 1분위 아파트 전세는 평균 7872만 원인데 비해 5분위는 3억 3357만 원으로, 4.2배 차이가 나 울산(4.3배)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여기엔 지난해 남구 봉선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한 데다 일부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현상이 맞물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격차는 곧 주거 복지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도 늘게 된다. 광주시는 무분별한 인허가로 공급만 늘릴 게 아니라 주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전면 개편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한 관계자는 새해 벽두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실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여기에는 어느 장애인의 죽음이 관련돼 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이던 설요한(25) 씨는 지난해 5월 여수에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중 ‘미안하다’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전장연은 설 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한다.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매달 4명씩 모두 36명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찾아가 1명당 총 5차례씩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한 뒤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임금 중 일부가 삭감되고, 센터 공금 중 일부가 사전 환수되는 등 동료들

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은 중증장애인이 ‘동료지원가’와 같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사업 수행 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 월 최소 60시간 근무하면, 최대 월 66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일만인도 힘든 매달 4명의 상담을 5차례씩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더군다나 할당된 업무를 인수하지 못하면 임금 일부를 환수한다는 건 가혹한 일이다. 전장연 관계자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제 참여자 인원을 축소하고 상담 횟수를 조정하는 등 취업 지원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 중증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공공일자리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도 설렘과 기대 속에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끝날과 마찬가지로 첫날에 의미를 두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일 년 365일 첫날과 끝날 못지않게 나머지 363일도 똑같이 귀한 날이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은 삶의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과 여정의 중요성을 노래한 시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디./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흔·친구 등은 선택 여여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타인의 시선과 편견 등으로 원하는 꿈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이 남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정답이 없기에 그 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노래한 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가지 않은 길’

길로 비유되는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었다. 올해 2020년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 보 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흔적이 적어 아마 걸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없이 만나게 되는 삶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렇고, 태어남과 죽음 등도 그러한 예다. 그에 반해 진학이나 직업·이사·결

길로 비유되는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었다. 올해 2020년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 보 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흔적이 적어 아마 걸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없이 만나게 되는 삶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렇고, 태어남과 죽음 등도 그러한 예다. 그에 반해 진학이나 직업·이사·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취(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